

## 110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문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3)

#### 주제 : 동아시아의 각도에서 본 일본 사상사

제 13 주차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에서는 교코대학(京都大學) 명예교수인 쓰지모토 마사시(辻本雅史)가 「동아시아의 각도에서 본 일본 사상사」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쓰지모토 교수는 대만대학에서 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번 국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만에 오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쓰지모토 교수는 전세계가 글로벌화된 오늘 이 시점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온 일본의 역사가 근대 이후의 국가사관(國家史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토리(story)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사는 없으며, 그 중 인지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쓰지모토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일본 사상사와 동아시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본 강의를 통해 설명한다.

#### 중국 왕조와 일본 : 밀접성

우선, 중국 역대 왕조와 일본과의 관계를 간단히 서술하면서 선사시대부터 은상(殷商)시대 및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각 시대별 정치가와 지식인들이 중국에서 유입된 많은 학문과 문화를 수용했다.

#### 고대 : 중국 문화의 수용

중국 진한(秦漢)시대 철기와 벼농사가 일본 야요이 시대에 전래되었다. 한자는 서기 5세기 남북조 시대에 도입됐고, 유교와 불교는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 아스카문화(호류지:法隆寺), 하쿠호문화(야쿠시지:藥師寺), 도다이지(東大寺)와 도쇼다이지(唐招提寺)로 대표되는 덴포문화(天平文化)는 불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밀교도 이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왔다.

#### 고대 율령국가(7세기 후반~): 당 제도 도입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자로부터 변천한 문자로 일본인의 사상을 표현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귀족들은 음도(중국어 낭독법), 유가, 불교등을 배웠다. 일본은 수·당에 사절단을 보냈고 성당(盛唐) 시기에는 당나라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일본은 송나라와 무역이 발달하였고 일송무역(송경제구역)에서 송전(宋錢)의 수입은 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 중세·가마쿠라 시대(12세기 말~14세기 초): 송·원

선종은 이 시대 사상의 중심으로 외국 승려와 유학한 승려가 활약하였다. 겐조지(建長寺), 엔가쿠지(圓覺寺), 에이사이(榮西), 도겐(道元)이 대표적이다. 일본적인 특색을 갖춘 가마쿠라 불교(鎌倉佛教)도 이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

### 남북조-무로마치 시대(14세기 전기~15세기): 명제국

원나라에서 명나라 시대의 과도기적인 시기로 일본에서도 사회 변혁기에 접어들 때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들어선다.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의 일본은 명나라의 책봉체제가 바로 국제질서라고 인식하였다. 류큐무역과 왜구도 이런 국제질서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많은 외국 승려들이 일본에 오면서 고산분가쿠(五山文學)과 수묵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 근세 성립-아츠치모모야마(安土桃山): 명질서 붕괴 시기

명(明) 중심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동안 고니시 유키나가와(小西行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본 통일 정부를 세웠다.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에 출병하여 명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대는 노가쿠(能樂), 다도(茶道), 꽃꽂이 등 독특한 일본 문화가 창조되는 시기이다.

### 에도(江戸)시대 쇄국체제: 명칭 교대 시기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차되고 일본에는 쇄국 체제가 세워졌다. 쇄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상의 일본식 화이질서(日式華夷秩序)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쇄국 체제에서도 나가사키, 쓰시마, 사쓰마, 마쓰마에를 통해 외부세계와는 연결 되어 있었다.

### 동아시아에서 본 근세 사상사

근대 초기 이후 유학은 선종을 대신하는 일종의 지식의 원천이 된다. 경서(經書)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일본어로 읽는 방식의 훈독(訓讀)과 사서오경을 반복해서 읽고 교과서를 내실화하는 소독(素讀)이 있다.

### 일본 유교

17세기 일본 유학자들은 한자 서적을 수입해 유학(儒學)을 연구했고, 한자 서적에 훈점을 붙이는 일을 주로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유학(儒學)은 송·명 시대의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서(四書)의 학술적 사상안에 있다.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가이바라 옛켄(貝原益軒), 古義學의 창시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古文辭學을 제창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등은 기존의 유학(儒學)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만의 유학을 창조했다.

## 국학사상

모토오리 노리나가는(本居宣長)은 한문식 사상에 반발해 문자 이전의 일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학의 대가이며 어학연구서를 작성하였으며 ‘고도론(古道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막부(幕末)-근대

보통 근대화란 서양 근대의 학술과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지만, 이는 한역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한자문화권의 한학적인 사고 방식을 공유하였으며, 한학은 서양의 학술을 전달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한학적 사고 방식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교감하게 하고 학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다.

(웹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원고 : 쓰지모토 마사시(塚本善也), 일본어과 부교수)

(중국어번역 : 황진탕, 일본어과 부교수)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